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바른 이해 세미나



강사 : 금주섭 박사 (장신대 교수)

일시 : 2021년 7월 11, 18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생명샘동천교회 라마나웃홀(6층)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샘 동천교회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금주섭 (장신대 교수)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적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됨의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저희가 하나됨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17:22-23) 교회의 일치추구는 결코 교육과 봉사, 선교나 전도의 사명보다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간의 장벽을 허물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천 년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수행하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 WCC란 무엇인가?

WCC 현장은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이에 따라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현장1조 1항)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WCC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 둘째, WCC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 셋째, WCC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 확정된 삼위일체 교리를 공통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 WCC의 회원교단

WCC에는 전 세계 110개국의 349개 주류 교단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약 5억6천만의 성도들을 포함하며 전 세계 개신교회의 80%를 대표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준 미국장로교회(PCUSA), 미국감리교회(UMC), 캐나다장로교회(PCC), 캐나다연합교회(UCC), 호주연합교회(UCA), 스코틀랜드장로교회(COS), 웨일즈장로교회(PCW), 영국성공회(COE), 독일루터교회(EKD)등이 모두 WCC의 핵심 교단들입니다.

○ WCC의 주요 활동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세계선교사대회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에큐메니컬운동이 태동되었습니다. 1921년에는 국제선교협의회(IMC)가 창립되고 세계선교를 위한 교파간 연합운동을 촉진하였습니다. 한편, “교리는 분열시키지만, 봉사는 연합시킨다”는 구호 기독교연합봉사운동(Life and Work)이 192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신학적 연구를 위해 ‘신앙과 직제’(Faith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바른 이해 세미나

and Order) 운동이 1927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치, 선교, 봉사를 위한 교회 연합 운동들이 서로 협력하여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찍이 에딘버러 대회에 윤치호 선생과 언더우드, 사무엘 마펫 등 10여 명의 선교사 대표들을 파견하는 것을 필두로 계속되는 세계교회의 일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1918년 조선예수교장감협의회를 조직한 이후 오늘날까지 중단없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노력을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특별히 장로교안에서 총회신학교 이전 문제가 WCC 참여 문제로 확산되었고 이는 이는 주류 장로교단이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는 아픔으로 이어졌습니다.

○ WCC에 대한 바른 이해

1) WCC는 용공인가?

WCC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산권의 복침 주장에 반박하여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을 남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WCC는 유엔 안보리에 연합군 창설을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의 구호와 복구를 위해 WCC는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남한을 도와주던 WCC에 대해 용공성 시비가 가장 먼저 대두된 배경에는 휴전협정과 삼선개헌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고 휴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용공으로 몰아 붙였습니다. 반면 WCC는 600만의 사망자를 내고 끝날 기미가 없던 이 전쟁을 휴전하고자 하는 유엔과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대만식의 종신총통이 되기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였고 WCC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자 WCC는 “용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WCC 용공설을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는 1961년 동구권 교회의 WCC 가입을 그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WCC에 동구권 교회들이 가입(1961년 뉴델리 총회)하기 이전이었고, WCC는 강한 반공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공산주의하 교회들의 WCC 가입을 허용한 것은 동구교회들을 세계교회와 연결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WCC는 공산주의와 독재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 정부의 계엄령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비판하였고 군사정부는 각종 이념교육 교재에 WCC를 용공단체로 매도하였습니다. 당시 군사정부와 협력적 관계에 있던 보수 기독교가 이를 교계로 무비판적으로 확산하였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용공설은 사라졌으나 한국에는 아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WCC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가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인류의 자유의 확대, 인권의 신장, 정의의 실현에 공헌한 세계기독교의 자랑

스러운 역사입니다.

2) WCC는 단일교회를 지향하는가?

1950년 7월 15일 WCC 중앙위원회는 “WCC는 단일교회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WCC는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 선교, 봉사, 교육에서 서로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교제를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회의 분열입니다. 분열된 교회는 핵분열을 거듭하여 장로교단만 100여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100여년 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와 상황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분열의 난맥상은 한국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가 “공적복음”을 통해 거듭나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훨씬더 깊이있고 수준 높은 연합과 일치운동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WCC는 선교에 반대하는가?

1973년 방콕 세계선교대회에서 동아프리카장로교회 총무 존 가투 목사가 아프리카 교회의 자치, 자전, 자립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선교사 파송 및 선교비 지원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동기는 1973년 상황에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교회의 리더쉽이 여전히 서양 선교사들이었고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사례비를 서구교회의 지원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립이 요원하였습니다. WCC 선교대회는 아프리카 교회의 자립 방안에 대해 토론한 후 ‘선교유예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교의 동역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된 안건을 빌미로 WCC는 선교를 반대한다고 근본주의자들이 비판하였고 국내에서 사실에 대한 검증없이 인용되었습니다.

4) WCC는 게릴라를 지원했는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타이트 독재정권이 인종차별 정책을 펼칠 때 WCC는 넬슨 만델라가 이끄는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WCC를 못마땅하게 여긴 남아공 정권은 “게릴라 지원설”을 퍼뜨렸습니다. 비밀이 해제된 보고서를 보면 게릴라 지원 명단에 영국왕실이 포함될 정도로 영터리 주장이었습니다. 그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교단의 분열에도 깊이 관여한 극우주의 성향의 지도자 칼 메킨타이어가 “WCC가 교인들의 헌금을 만델라의 무기구입 자금으로 지원” 했다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전파하였습니다. 만델라는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최초의 해외 순방지로 제네바의 WCC 본부를 방문하여 감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WCC는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민권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쿠 클럭스 클랜(KKK) 등 기독교 인종차별 테러주의자들이 WCC가 혁명세력을 지원한다고 선전하였습니다. 루터 킹 목사는 1968년 WCC 워싱턴 총회의 주제강사였는데 총회 개막 일주일 전에 암살 당하였습니다. WCC가 인종차별을 철폐 운동에 앞장 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없는 복음(에베소서 2:18)에 대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한 활동이었습니다.

5) WCC는 개종을 반대하는가?

WCC는 개종(proselytism)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Proselytism”은 “개종”으로 번역되지만 그 뜻은 “기독교 내에서 한 교파가 다른 교파의 교인들을 빼내가는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로 정교회가 강하게 개종전도에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십자군 전쟁시 정교회 교인들을 무력으로 카톨릭으로 개종한 것과 초창기 오순절 운동이 정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며 개종 전략을 편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WCC는 다른 종교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초대하는 것을 전도(evangelism)라고 정의하며 핵심사업중의 하나입니다. 필립 포터 전 WCC총무는 “전도는 진정한 에큐메니즘의 시험이다”라고 말하며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6)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가?

WCC는 종교간의 대화를 지향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1989년 샌 안토니오 세계선교대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어떠한 한계를 둘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는 그 발상의 근거부터 잘못된 이론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선포하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타종교의 신앙은 비역사적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얻는 구원의 체계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만 있는 구원을 타종교의 구원과 관련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범위를 적용하는 문제와 종말에 완성되는 창조세계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으로 인간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적 영역입니다. 예를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율법으로 살던 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적 구원은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이루어 지는데, 여기서 이루어질 자연과 만물의 완성은 하나님이 신비이자 주권의 영역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와 지역은 양심에 따라 판단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 종교간의 대화는 기독교가 소수자 종교로서 박해를 받는 지역에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자유와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선교이다.
- 사도바울의 아레오파고스 설교의 성취론적 입장(fulfillment theory)에 근거하여 타종교의 상대적 진리를 인정한다.
- 신앙의 열정을 타종교에 대한 적대적 배타성이나 공격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선교적미성숙이다.

○ 정현경 교수의 주장과 바야르 문서

- 다른 해방의 영들을 성령과 연관시킨 정현경 교수의 주장에 대한 WCC 캔버라 총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성령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바른 이해 세미나

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가 종종 다른 종교들의 심오한 영성과 접할 때 기억해야만 한다.”

- 복음주의자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바아르 문서」의 기독교론과 구원론을 비판한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역사에서 일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은총의 경계선을 약화시켰고, 둘째, 기독교론을 넘어서는 구원론을 언급하고 있으며, 셋째, 성령론의 활동 범위를 타종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 전통 구원론은 일반 계시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편적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난 구원의 특수성을 붙잡는다. 그리고 인류학적 구원론에 집중하기 때문에 바울서신과 초대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자연의 해방과 구원을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 「바아르 문서」는 구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붙잡으려고 시도했고, 우주적 기독교론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화해자로 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론을 강조하고, 교회 밖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지평을 넓게 보려는 시도를 했다.
- 이것은 타종교 안에도 기독교와 같은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진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모험”이었다. 그 점에서 종교다원주의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문서는 1991년 WCC 캔버라 총회에서 연구문서로 제출된 것으로 WCC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7)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 정교회와 아프리카 교회는 WCC가 동성애를 의제로 상정하면 즉각 탈퇴를 경고하고 있다.
- WCC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그 어떤 입장이나 성명도 발표된 적이 없으며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하고 있다.

○ 한국교회 WCC 비판에 대한 제언

- WCC에 대한 비판들은 객관적 근거, 역사적 실체와 그 진실성에 대한 연구에 기초해야 한다.
- WCC는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그 진보성 못지않게 상당한 보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양면성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 WCC를 비판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1950년대부터 내려오던 파편적 경험들의 확대 재생산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시대적 상황들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 정치적 동기의 “비난”이나 “가짜뉴스” 등은 한국교회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자극적인 동영상이나 정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은 기독교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시킨다.
- 일부 군소 교단이나 이단의 상대적 반사이익을 위한 정통 교단에 대한 공격은 자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바른 이해 세미나

제되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는 정당하고 건강한 비판들은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여 개혁되어져야 한다.

○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한 질문

첫째, 교회론적 질문이다. 한국의 보수교단들은 세계교회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교단들과의 교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한 전세계 80% 이상의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그리스도의 교회, 정교회 등의 교단들과 상당수가 가입한 침례교와 오순절 운동을 대표하는 349개 주류 교단들을 과연 한국 보수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하는가?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학적인 근거와 권위는 무엇인가? 최근에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등 대표적인 복음주의 연합운동도 반대하는 극단적 고립주의를 채택하면서 어떻게 정통교회를 표방할 수 있는가?

둘째, 분열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1959년 통합, 합동간의 분열을 두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입장차이를 신학적 명분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의 분열은 1959년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며 보수적인 교리를 견지하는 등 신학적 차이가 거의 없는 보수교단 내에서 최근까지 핵분열을 거듭하여 세계교회사에 유래가 없는 200여개의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분열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가? 회개해야 할 죄성인가?

셋째, 교회와 국가간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문화 등 여러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현상들을 복음에 입각하여 조명해 왔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을 때에는 때로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 왔다. 이를 두고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를 정치적으로 비난해왔고 용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렇다면 정교분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한국 보수주의 기독교의 강한 정치참여는 어떤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선교와 종교간의 대화 문제이다.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는 세계교회협의회 타종교와의 대화적 관계를 기독교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선교의 의지가 없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베뢰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며(행 17:11) 종교간의 평화를 모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과 타종교에 대한 공격적 배타주의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포스트 모던시대에 더 효과적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의 보수주의 교단들은 과연 타종교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적대적이며 전투적 관계를 올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바른 이해 세미나

른 관계로 믿고 있다면 다종교 사회인 한국적 정황에서 이러한 태도는 전도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반선교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에큐메니칼 운동, 한국기독교를 위한 대안인가?

이제 한국 보수주의 기독교는 세계교회협의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 문제들에 대해서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신학적인 자질을 갖추고 담론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에큐메니컬운동이 탄생한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와 상황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분열의 난맥상은 안티기독교 세력이 창궐하는 21세기 한국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색안경을 벗고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성과에 대해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으로 비유하였다. 교회를 분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 없이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은 성취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분열은 어떠한 신학적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일치운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간절히 요청되고 있다.

총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애정 어린 충고는 겸허히 수용하고 WCC를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교단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열로 이끌거나 형제교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반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에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 전체의 연합과 협력 정신을 훼손하고 교단 간 갈등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으므로 서로가 자제하고 나보나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교회는 이제 남반구로 중심축이 이동한 세계기독교의 지도자로 한국교회를 주시하고 있다.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사적 요청이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계기독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시고자 하는 섭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종된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야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한국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는 깊은 영성이 있다.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는 높은 윤리가 있다.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는 참된 교회론과 선교가 있다.

우리 총회는 하나의(una), 거룩한(sancta), 보편적(catholica), 사도적(apostolica) 교회를 믿는다. 분열하고, 세속적이며, 배타적이며, 사도적 승계를 부정하는 고립주의를 거부한다. 복음적 에큐메니즘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다.